

남원 옛 한옥호텔 '명지각' 내년 재개관

1950년대 광한루원 인근에 개관 한옥 3채, 30여년 운영후 방치 국비 39억원 등 들여 리모델링

70년 된 남원 옛 한옥호텔 명지각이 새롭게 단장된다.

남원시는 장기간 방치된 옛 한옥호텔 명지각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새로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지각은 1950년대에 광한루원 인근 500여㎡ 부지에 단층 한옥 3채로 지어져 30여년간 운영된 유명 호텔이었다.

하지만 현대식 숙박시설에 밀려 문을 닫은 뒤 한 채는 한정식집으로 쓰이고 있으나 두 채는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79억원을 들여 세 채 모두를 리모델링해 다시 한옥호텔로 만들기로 했다.

애초 20여개였던 객실을 10개 안팎으로 줄이고 대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리산 고목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화려한 창살 등은 최대한 살린다.



리모델링을 앞둔 남원의 옛 한옥호텔 '명지각' 사랑채 전경. <남원시 제공>

인근에 있는 한옥 두 채도 함께 매입해 숙박시설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9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전북도와 함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모에 적합한 유류시설을 발굴, 장소의

역사성, 건축의 특별함을 반영한 옛 명지각 한옥의 리뉴얼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장기적으로 명지각과 인근의 한옥들을 묶어 마을 호텔로 확장할 방침"이라며 "인근의 대규모 전통한옥 체험단지인 예촌과 연계하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익산시, 부동산 불법투기 뿌리뽑는다

특별조사단·공익신고센터 운영

익산시가 유관기관과 손잡고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익산시는 익산경찰서와 익산세무서,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한국부동산원 중개업협회 익산지회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조사반과 주거안정반, 홍보반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특별조사 실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예방에 노력한다.

특히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차단한다.

특별조사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는 시장교란 행위자와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익산세무서는 세금 탈루 의심자에 대한 조사와 추징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와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투기 근절 교육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범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탈법 상황을 집중 단속해 투기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본격 추진

가장제·장암제 2개소

2024년까지 37억원 투입

고창군이 농업생산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간다.

고창군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관련 올해 신규지구 2개소(아산면 남산리 가장제, 상하면 장암리 장암제)에 대해 2024년까지 총사업비 37억원(가장제 20억원, 장암제 17억원)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제와 장암제는 정밀안전진단 'D' 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돼 지난달 말 실시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용역을 착수했다. 마을설명회등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신림면 송용제'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으며, 총사업비도 당초 13억원에서 14억43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군은 올해 고수면 인통제 등 6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우기철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진호 고창군 기반조성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중앙부처, 국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재해예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최대 5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의료비 지원

순창군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내장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된다.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전에 의료비를 지원받았으면 신청일 기준 7년이 지난 군민은 제외할 수 있다.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순창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군은 지난해 78명(134인)의 군민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063-650-5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백내장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조기진단과 시력 교정으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며 "백내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군민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귀농·귀촌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정읍시 구룡동에 문을 열었다.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개관

귀농인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정보·기술 제공 교육장 등 갖춰

귀농·귀촌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정읍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거점 공간이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구룡동(구량1길 237번지) 일원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단지 내에 총 8억원을 들여 연면적 261.54㎡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 1층에는 귀농·귀촌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귀농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할 교육장 시설을 갖췄다.

2층에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3실과 귀농·귀촌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도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유입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모델 개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

23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서

로컬푸드 기업 등 34사 참여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3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한다.

이번 매칭데이는 군산 미래산업 특화기업 및 로컬푸드 관련기업 34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홍보와 구직자 발굴,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젊은 인력을 원하는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150여개

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만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사업기간 동안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급 등 지역정책 지원과 맞춤형 직무교육 및 자기계발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이 이뤄져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물론 직무 및 취업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행사는 현장 면접부스 뿐만 아니라 취업컨설팅 및 취업 지원사업 안내 부스를 동시 운영해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사 지원서류 사전 접수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063-450-130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